“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최응천 청장, 취임1주년 간담회서
관람료 감면, 문화유산 향유 ‘기대’
10월 조선왕조실록전시관 개관
국가유산 전환, 12월 비전 선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5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5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감면 정책 시행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9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청장은 지난 1년 성과 중 하나로 국립공원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을 꼽았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 421억 원이 책정 · 승인돼 비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최 청장은 “불교계 소유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통문화유산 보호 및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역점 과제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 △문화유산 분야 규제 혁신 △궁능문화유산 복원 정비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국외소재문화유산 전략적 환수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가칭) 개관 등을 발표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유산기본법을 비롯해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연계 법률 제 ·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체제에 맞는 정책 전환과 법령 일괄 정비, 유산 정보 변경 등이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이 담긴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을 오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도의 숙원사업이었던 오대산사고본 실록 · 의궤의 ‘환지본처’도 본격화된다. 최 청장은 “월정사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이 지난해 10월 국가로 기부채납됐고, 국가지정문화재 소장 · 관리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 중”이라며 “오는 10월 중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으로 부분 개관하며, 2단계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0월 전면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은 국립고궁박물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며, 상설 및 특별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물 보존처리,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된다.

최 청장은 “오대산사고본 등 조선왕조 최고 기록유산인 실록 · 의궤를 현지 보존하고 조사연구 · 전시 ·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최 청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3년 기준 국외소재 문화유산은 27개국 22만9655점, 환수된 것은 12개국 1만1034점에 이른다.

최 청장은 “소재국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유럽 국가와의 교류 강화 및 신뢰 구축을 통한 조사 연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소재국과 역사 ·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K-공유유산’을 적극 발굴해 활용 방안을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이날 사찰을 다수 포함한 ‘문화유산 방문 코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천년 정신의 길(불국사, 석굴암, 봉정사 등), 백제 고도의 길(마곡사, 미륵사지 등), 왕가의 길(전등사), 관동 풍류의 길(낙산사, 신흥사, 월정사)에서 사찰을 방문할 수 있다. 특히 고유한 역사를 지닌 사찰들을 방문하는 ‘산사의 길’은 마곡사, 법주사, 대흥사, 선암사, 송광사,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해인사로 구성됐다.



조계종 사노위 “日오염수 방류 중단하라”

5월 8일 조계사~일본대사관 오체투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엄밀하게 듣고 무수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오염수 방류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의 생명이 걸린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해 기시다 총리로부터 확답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체투지했다.〈사진〉

사노위는 5월 8일 서울 조계사부터 종각,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까지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오체투지’를 개최했다.

불교환경연대 소속 스님들도 동참한 이번 오체투지는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방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7월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여러 방사성 물질 등이 섞여 방류될 것을 우려하는 일본 자국과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에 희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체투지에서 사노위 부위원장 고금 스님은 현재 방한 중인 일본총리에게 자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도 “그동안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던 우리나라 정부 역시 진정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한 지금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한 명확한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적극 중단시키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대해 일본의 눈치만 보며 방치한다면 국민 전체를 피해자로 만드는 정부가 됨을 엄중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오체투지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원전 등 생명과 환경을 위한 실천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서울경찰청 봉축법회…“문수 지혜 배워 치안 만전”

5월 9일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봉행

포교원장 범해 스님 법어
“주인 되도록 정진” 당부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5월 9일 청사 대강당과 로비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봉축대법회를 봉행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5월 9일 청사 대강당과 로비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00여 명의 대중이 모인 가운데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과 포교부장 선업 스님, 천태종 개문 · 성민 · 진철 스님, 봉은사와 관문사 신도 등이 함께했다.

이날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준비된 법어 원고가 아닌 즉석 법문으로 불제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강조했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은 우리의 생일이자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어야 한다”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신 · 구 · 의 삼업을 관리해 내가 주인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경승실장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축사에서 “법 질서 내에서 경찰 여러분이 치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면 행복하고 화합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청장은 “삼법인의 제행무상 · 제법무아가 경찰의 혁신, 현장을 향하라는 가르침으로 생각한다”며 “문수보살의 지혜와 리더십을 배워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법회에선 김봉식 서울경찰청 불교회장이 총무원장 표창을, 신동일 부회장이 포교원장 표창을, 김향란 · 이선주 회원이 경승실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관문사 부주지 개문 스님, 백락사 주지 성민 스님, 흥원사 주지 성오 스님, 봉은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 세광사 감원 종률 스님이 감사장을 받았다.

법회가 끝난 뒤 사부대중은 로비 1층으로 이동해 포돌이 · 포순이 장엄등을 밝히며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렸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템플스테이 치유효과 연구 임상 참가자 모집

문화사업단, 동국대일산병원 공동
20~69세 100명…7월까지 접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이하 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의 치유효과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동국대일산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연구는 과민성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 전후의 장내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변화와 환자의 증상 변화를 임상시험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다.

임상시험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와 4주 후 분변 채취키트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증상 변화와 임상시험 만족도 등을 조사해 검증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참가 자격은 △20세 이상 69세 이하 과민성장증후군 환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 △사전검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모집인원은 최대 100명이며, 신청 기간은 7월 말까지다. (031)961-8441 신성민 기자

